

“표류 문화 제주섬 정체성 탐색할 중요한 자원”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주최 장한철·하멜·김대건 신부 등 도내 표류지 3곳서 답사 체험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 제주인이 만난 새로운 세상”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하멜 위령비를 찾은 표류지 답사자들이 강문중 제주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진선화기자

초여름 날씨가지만 바닷바람은 제법 거셴다. 360여년전, 이 앞바다에 떠밀려 온 걸로 보이는 ‘서양인’들이 있었다.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다.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해안도로,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진행하는 인문체험으로 3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2017년 신도2리 마을회, 신도2리항민회, 해양탐험문화연구소 부설 하멜기념사업회 등이 세운 하멜 위령비가 있는 곳이었다. 위령비에는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을 옮긴 ‘계사년 음력 7월 24일 서양국만인 헨드릭 얀센 등 64명이 함께 탄 배가 대정현 지방 차귀진 아래 대물 언변에서 부서졌다’는 글귀가 새겨졌다. 해설을 맡은 강문중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커다란 빛돌 앞에 섰다. 강 교수는 “문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제주도지사에 해당되는 제주목사가 남긴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고 본다”

며 ‘지영록’과 더불어 ‘하멜보고서’에 실린 표류 당시 그림에 나타난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할 때 하멜 일행이 하멜기념비가 들어선 웅머리해안이 아닌 신도2리에 표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했다. 이날 인문체험은 ‘표류지 답사’로 꾸며졌다. 답사는 제주시 애월읍 한담리 장한철의 표해록 유적, 최초의 한국인 천주교 신부가 제주에서 행한 첫번째 미사를 증거하는 한경면

웅수포구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관, 하멜 위령비로 이어졌다. 제주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로 향하던 제주인, 제주바다로 흘러와 낯선 땅에 당도한 이방인 등 제주도민들이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표착지와 관련 유적을 소개하고 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짰다. 답사 참가자들은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착할 때 숨진 희생자들이 어

디에 묻혔는지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수백 년 전 제주를 배경으로 벌어진 표류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말하지만 관심을 쏟는 제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며 “표류 문화는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 제주인이 본 바깥 세상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화기자

5월 제주엔 ‘설문대할망의 날’ 있다

13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공원 무료개방 20여개 행사

5월 제주돌문화공원으로 가면 제주섬을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의 설화를 만날 수 있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양한식)는 5월 한

달간 제13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열고 이 기간 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을 기리고 제주 창조신화와 문화를 발전·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5월에 ‘설문대할망의 날’을 정해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있다. 올

해는 설문대할망제 분행사(15일), 설문대할망 워크숍(13일), 설문대 제주국문화제(15일), 설문대할망 작은 음악회(19일),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25일) 등 20여 개 행사가 5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최재영·김미희 부부 기증사진전(7월 28일까지), 장승애 회화전 소리보기(5월 31일까지) 등 전시도 마련됐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은 돌문화공원 누리집(www.jeu.

go.kr/jejustone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담은 세계적인 신화행사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5월 한 달간 돌문화공원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진선화기자

제주 대표 공립박물관 35주년을 함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와 협업 기념 행사

제주 대표 공립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35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은 개관 기념일

인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회장 김순택)와 손을 잡고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벌인다. 박물관은 이날 ‘생일축하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 중에서 5월 24일 생 선착순 5명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박물관 예코백, 박물관 그림, 도록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물관 그림은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박물관봉사의 진행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잇따른다. 방문객들은 아트엽서·동백꽃 색칠하기, 스탬프 찍기, 박물관 페이퍼 토이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봉사회원의 재능기부로 부채에 가운 써주기도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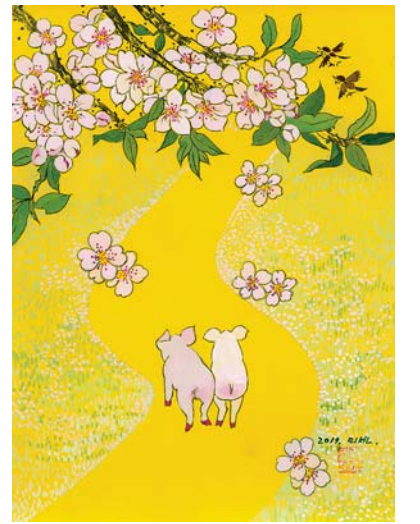
김순택 봉사회장은 “박물관 개관 35주년을 맞아 봉사회원들과 체험행사를 운영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호 관장은 “개관 기념 체험행사를 봉사회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박물관과 봉사회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봉사회원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선화기자

이번주(5월 13일~19일)

무대 & 미술

같이의 가치 담아 제주 미술로 동행

제주미술협회 회원전 서양화에서 서예까지



제주미술협회 이미선의 ‘치유의 정원-동행’.

제주 미술인들이 봄 전시장을 꽉 채우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가 펼치고 있는 일흔여덟 번째 회원전이다.

이번 회원전은 장르적 융합으로 답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각자 다른 삶의 과정에서 어울리며 소통하는 인간애의 의미를 담아 ‘하모니, 같이, 가치’란 제목을 달았다. 서양화, 한국화, 조소, 공예, 서예, 평론 등 전반적인 제주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연〉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5월 15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978.
- ▶마임이스트 이경식의 행복한 버블팡팡=5월 15일 오후 7시 동홍아트홀. 760-4685.
- ▶오페라 갈라랜드=5월 15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 740-7150.
-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봄 작은음악회=5월 1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9487-5878.
- ▶한국리스트협회 제주지부 연주회=5월 16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 ▶가족뮤지컬 ‘제주로 온 바보 호랑이’=5월 16-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22-0794.
-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독주회=한국인 최초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지난해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의 스타였다.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으로 클라라 슈만의 ‘노투르노 바장조 작품 6-2’,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한다. 5월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 ▶제주대 현악연구부 연주회=5월 1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 ▶모드라기합창단 연주회=5월 18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 ▶세대공감 모다들영 뮤직쇼=5

- 월 19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연주회=5월 1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691-4471.
- ▶할머니의 이야기치마=5월 19일까지 두근두근시어터. 070-8610-7857.
-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6월 2일까지 세이레아트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 1688-4878.
- 〈전시〉
- ▶김정희 증가유물 특별전=5월 14-7월 28일 제주추사관. 710-6802.
-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5월 1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한라에서 백두까지 채기선 박용국 강경민 3인 초대전=5월 17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750-2291.
- ▶강부연 개인전 ‘삼무일기’=5월 18-7월 18일 강부연갤러리. 개막에 맞춰 복합문화공간인 아트인명도암 개관도 이루어진다. 010-3696-1100.
- ▶제주도사진전체연합전=5월 18-23일 문예회관. 710-7633.
- ▶생명의 어울림 Ⅲ=제주전통문화광생교육원 주최로 5월 18-23일 문예회관. 710-7633.
- ▶이정당 개인전=5월 19일까지 이아 갤러리. 800-9331.
- ▶이준립 초대전=5월 19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진선화기자 sunny@ihalla.com

#제주의_파란하늘 #같이_지킴시다

주택용 태양광

이번에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30년 쓰는 태양광! 어느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여기업	보증기간	총공사비	자부담금	보조금	연락처
제주솔라에너지	10년	5,490,000원	2,685,000원	2,805,000원	742-5775
상명엔지니어링	8년	5,400,000원	2,595,000원	2,805,000원	744-4209
나눔에너지	6년	5,544,000원	2,739,000원	2,805,000원	745-0420
세경	7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33-4340
세경이앤씨	7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33-1873
보타리에너지	5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47-8826
대은	5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55-8446

이미 제주솔라에너지의 많은 고객님께서 전기요금 절감의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2019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사업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올해는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참여기업에서 30년동안 사용할 주택용태양광을 설치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